

# 남원 수해피해복구 지원 '팔 걷다'

### 도내 중기 지원기관 합동으로... 주천면 더조은위터에 정책자금 융자 예정보고서 전달

도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팔을 걷었다. 13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소기업지원 7개 기관은 합동으로 이번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원지역 중소기업의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날 복구현장에는 전북중기청 공무원과 중진공지역본부, 소진공지역센

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임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피해기업의 공장내부의 토사제거와 배수로 정비 등 복구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피해가 심한 남원시 주천면에 소재한 (주)더조은위터는 생수제조업체로 이번 폭우로 인근 산에서 토사가 유입돼 건물일부와 기계시설 파손, 완제품 훼손 등 피해금액이 4억원에 달하여 복구인력지원과 재해특별경영안

정자금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은 이날 (주)더조은위터에 대해 수해복구를 위한 인력지원과 동시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심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현장에서 정책자금 융자 예정보고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주)더조은위터 정송균 본부장은 "지난 주말부터 직원들과 하루도 쉬지 않고 수해복구에 진을 댄었는데, 이렇게 인력지원과 더불어 정책자금을 신속

히 처리해주셔서 숨통이 트인다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북중기청 안남우 청장은 "앞으로도 도내 재해기업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중기청은 이번 폭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과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진공 전북지역 본부는 14일부터 20일까지 남원시청 별관에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상황실을 운영한다. /김윤상 기자



## 혁신적인 상품성에 매력 더했다

### 현대차, '올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N라인 출시

현대자동차가 13일 '올 뉴 아반떼'의 '하이브리드'와 'N 라인(N Line)' 모델을 출시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올 뉴 아반떼는 지난 4월 차급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상품성으로 5년 만에 완전히 새로워진 데 이어 이번 라인업 확대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욱 큰 만족감을 선사할 계획이다. '올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11년 만에 새롭게 탄생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현대차는 2009년 LPG(액화석유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아반떼 LPG 하이브리드를 선보인 이후 11년 만에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다. 올 뉴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고효율 시스템을 완성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엔진, 변속기) 적용으로 높은 연료 효율성과 최적의 힘, 편안한 승차감

을 완성했다. 올 뉴 아반떼 N 라인은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스포티한 주행 감성과 차별화된 내·외장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이다. 올 뉴 아반떼 N 라인은 스마트스 트림 기술인 1.6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04PS, 최대토크 27.0kgf·m의 강력한 동력성을 확보했으며, 6단 수동변속기와 7단 DCT(더블클러치변속기)를 변속기로 채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 뉴 아반떼가 높은 연료 효율성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와 스포티한 주행성능으로 완성된 'N 라인' 모델을 추가해 라인업을 강화했다"라며 "올 뉴 아반떼가 준중형 세단 시장에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

### 농식품부, '정읍 맑은샘자연교육농원' 조급자 대표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8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정읍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맑은샘자연교육농원(이하 맑은샘자연교육농원)'의 조급자 대표를 선정했다. 맑은샘자연교육농원 조급자 대표는 지역의 생산농가와 대규모 계약재배(감자, 무, 당근 등)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건조 가공 기술을 이용해 먹기 편한 건조 채소를 개발(채소잡곡, 채소볼, 큐브한끼 등) 하는 전략으로 농촌융복합산업화에 성공했다. 맑은샘자연교육농원은 지역농가가 재배하기 까다로운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1,500톤)의 대부분(93%, 1,400톤)을 12개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조 대표는 농산물 건조가공 기술 특허 4건을 획득, 채식 위주의 건강 증진 트렌드를 반영해 차별화된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먹기 편하고 균형잡힌 건강한 먹거리 제품을 개발했다. /김윤상 기자



13일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국산 마늘 '홍산' 판매 행사가 열린 가운데 판매원들이 홍산 마늘을 알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홍산' 마늘은 함량, 당도, 완화 등의 효과가 있는 '클로로핀' 성분을 다른 마늘보다 1.6~3.5배 더 함유해 마늘 끝부분이 초록색을 띤다. '홍산' 마늘은 전국 이마트 140개점에서 오는 19일까지 판매한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기능 성분 '풍부' ... 농진청, 국산 마늘 '홍산' 첫 출하

### 기존 마늘보다 당도 완화·간기능 개선 등 효과 있는 클로로핀 최대 3.5배 더 함유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첫 출하되는 국산 마늘 '홍산'을 광복절 주간 동안 전국 이마트와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통해 판매하며, 이는 마늘 종자 독립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내에서 재배 중인 마늘은 한지형 재래종을 제외하면 모두 도입된 품종이다. '남도', '대서' 품종은 각각 중국과 스페인에서 들여와 우리나라에 적응한 품종이다. 농진청은 2014년 개발한 '홍산'은 기후 후를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재배할 수 있는 마늘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 이름도 '홍(弘)자'와 '산(山)자'를 붙여지었다. '홍산'은 기존 마늘보다 당도 완화, 간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클로로핀(엽록소)'을 1.6~3.5배 더 함유해

끝부분이 초록색을 띤다. 마늘의 주요 기능 성분 중 하나인 '알리신'도 다른 품종보다 45% 이상 많고 마늘쪽이 크고 당도가 높으며 저장성이 좋다. 하지만 마늘 끝부분 초록색을 씹어 내지 못 먹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소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진청은 '홍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풍부한 기능성분을 알리기 위해 전국 140개 이마트 매장 및 하나로클럽 양재점의 8·15 종자독립 기획전을 통해 홍산 마늘 23톤을 판매한다. 가락시장 마늘 전문 법인 (주)대아청과와 협력해 진행하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감미는 위주로 판매해 '초록색 끝부분이 국산 마늘의 보증 표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또한, 정부혁신에 따라 소비자가 QR코드(정보부리)로 '홍산'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립원에특과과학원 누리집에 '홍산' 마늘의 품종 특성 안내서를 제공한다. 이번 기획전 기간 동안 농촌진흥청 사계절하우스에서 재배한 국산 파프리카 2톤도 함께 판매한다. 사계절하우스는 여름철에도 품질 좋은 채소 생산이 가능토록 지은 광복온실(폭 40m, 길이 135m, 높이 14m 규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에특과과학원 유승오 기술지원과장은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새 품종의 종합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국내 육성 품종의 소비를 늘리고 새 품종 도입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전북 농산물 우리 몸에 '딱'

### 전북농협, 찾아가는 도내 농산물 상품 설명회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13일 전북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농협 광주유통센터(김훈 지사장), 호남농산물물류센터(김석일 센터장), 광주공판장(육영석 장장)에 찾아가는 원예농산물 상품설명회 및 유통관련 담당자간 간담회를 열고 전북농산물 판매확대 요청 및 산지와 소비자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농협 원예유통사업단이 바이어 및 경매사들과 1:1접촉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북의 우수 농산물 홍보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소비자와 산지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전북도 산과 농정의 제값 받는 농산물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전북농협은 지역농산물이 호남권 및 제주권 시장에 지속적으로 판매 될 수 있도록 현장마케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업무 배우고·학점도 채우고... 국민연금 대학생 오픈캠퍼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3기 국민연금 오픈캠퍼스'를 실시했다. 오픈캠퍼스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이 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대학과 협력해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및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단은 2019년부터 오픈캠퍼스를 실시(1~2기)했으며 올해 3기까지 총 361명의 대학생이 참여했다. 이번 실시한 제3기 오픈캠퍼스는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연계해 취업관련 프로그램 강화, 기숙사 제공 등 학생 편의 확대를 내실화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노후준비지원사업 등 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연금 홍보관과 이전 공공기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다. 4일간의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한 인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3기 국민연금 오픈캠퍼스'를 실시했다.

원은 총 139명으로, 전북소재 5개 대학 재학생 135명과 이번이 처음으로 참여한 제주대학교 재학생 4명도 포함됐다. 오픈캠퍼스를 수료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2화점이 인정되며, 공단 직

원과의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홍보대사, 청년인턴 등 대학생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안내 및 채용 관련 Q&A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 수준 지원 가능

###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따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와 공개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점일차 △점점기관 △주요 지적 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사업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셋째,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취소된 경우 취소 횟수에 따라 3개월~1년간 가맹점으로 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안남우 청장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일환으로 시장의 공정거래 기반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다"면서,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전통시장법상의 지원 대상인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시설개선, 은누리상품권 취급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외식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친체력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북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지방은행 부문 '최우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020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 부문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2018년 10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2019년 중 금융회사의 실적을 평가한다. 정량평가 4개 부문(지역내 자금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과 정성평가(지역금융 지원전략) 부문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전북은행은 전북지역과 대전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결과 지방은행 중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평가는 은행 경영 실태평가에 반영 될 예정이며, 지자체 등 금고 선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